

대학 창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허선영¹, 장후은², 이종호^{3*}

¹경상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BK21PLUS, ²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³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산학협력정책연구소

Exploring the government policy for promoting university startups in Korea

Sun-Young Heo¹, Hoo-Eun Jang², Jong-Ho Lee^{3*}

¹BK21+,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²Institute for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Polic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Institute for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Polic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주요한 대학지원 사업의 하나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학 창업 지원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학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각종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창업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 자금 지원 및 창업 공간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의 형성 및 매출액 등과 같은 정량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학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 간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추진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탈피하고, 대학 내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대학 내 창업지원 조직이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사업 간 및 조직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대학 내 창업 지원 사업의 파급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요망된다.

Abstract The prolonged economic slowdown has forced many youths to opt for starting a business instead of seeking employment. Universities have shown their interest in startup training by opening startup courses and encouraging relevant student communities, while at the same time helping their students land a job. Along with this,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hrough creative economy and youth startup initiatives, but the resulting quantitative growth has not been supported by a commensurate level of qualitative growth and this has created problems on the supplier side, such as by producing redundant functions and roles in multiple projects and inefficient investment. This study, which aims at proposing a direction towards more active support and thus helping the government achieve qualitative accomplishments that can match its effort in terms of quantitative growth,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startup support of universities in Korea by examining the data regarding training programs and projects, and highlights the issues stemming from startup organizations in colleges. It also suggests solutions for improving in-college startup training and establishing an interlinked system among the relevant bodies in and out of college, with the hope that the results and alternatives proposed in this study will be utilized as the basis for more active student startup support activities.

Keywords : startup education, startup organizations in colleges, startup support projects, startup by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startup

본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4S1A5B8A02074068), BK21PLUS에서 일부 지원 받아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Jong-Ho Lee(Gyeongsang National Univ.)

Tel: +82-55-772-2185 email: jhl@gnu.ac.kr

Received November 18, 2016

Accepted January 6, 2017

Revised (1st December 9, 2016, 2nd December 26, 2016)

Published January 31, 2017

1. 서론

최근 들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창업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창업교육과정 개설 및 창업 동아리 육성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창조경제와 청년창업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창업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질적 성장을 동반하지 못한 채 양적으로만 지원 사업이 팽창하여 기능 및 역할의 중복, 비효율적인 재정투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학 내 취·창업지원 조직의 경우 대학자체 운영(종합인력개발센터), 교육부(창업교육센터), 고용노동부(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여성가족부(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중소기업청(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대학기업가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정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유사·중복사업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대학 현장 내에서는 이러한 창업교육 및 지원조직 간의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창업지원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1].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도 양적확대 보다는 질적 내실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실질적인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학 내에 창업 생태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할 경우 대학생들은 대안 없는 스펙 쌓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 교육과정과 지원체계 등 대학의 시스템적인 측면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에서 어떻게 해야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

이를 위해서는 창업과 관련된 대학 내의 조직 및 사업의 실태 파악을 통해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 내 창업관련 실태 및 창업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창업 공급자 측면에서 대학의 내실 있는 창업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및 정책 동향

2.1 연구 동향

창업학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 창업학 도입 초기에는 창업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고, 이후 창업교육의 교육내용 및 교수법 등에 관한 연구, 나아가 창업 사회학에까지 연구영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

1980~1990년대의 창업 관련한 국외연구는 몇 개의 선도 대학들을 검토해 창업학 교육과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4],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교육의 문제점 도출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5]. 2000년대에는 창업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연구가 전개되었다[6].

대학에서의 창업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창업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창업교육 초기에는 창업교육의 중요성 인식, 대학 창업교육의 활성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창업교육 기회 확대 등을 중심으로 당시의 창업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7,8,9,10]. 2000년 초반에는 창업교육과 관련하여 창업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11], 창업교육 체계화 방안 등이 있고[12], 2006년 이후부터 창업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업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 개선과 관련된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13].

최근에는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 프로그램 효과분석 등 창업교육의 양적성장애 따른 교육의 질적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 내 창업의 성장과 확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창업교육을 포함한 창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창업 교육 및 창업활동에 한정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대학의 창업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2.2 정책 동향

정부에서는 「청년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국정과제)」을 통하여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강화, 창업선도대학 확대 등 「창조형 청년창업가 발굴·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지역대학·지역기업 등이 연계·추진하는 「우리지역 키우는 창작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창업대학원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이하 LINC)사업을 통해 대학에 창업지원단 및 창업교육센터가 설치되면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 중 대학생 대상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정부의 창업관련 정책은 교육, 사업화, 자금, 제도전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 지원 사업은 창업아카데미, 창업대학원, 창업 선도대학 등 대학의 창업교육을 중점 지원하고, 창업선도대학사업은 창업 인프라를 갖추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대학이 추가 선정되어 총 21개 선도대학이 운영 중이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창업지원 인프라와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 창업 지원 사업을 일괄 지원하여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권역별로 창업보육모형을 대표하는 창업선도대학 선정을 시작으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 일반형 창업선도대학 16개교, 거점형 창업선도대학 12개교가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 지원 사업인 ‘청년 창직 인턴제’는 창직·창업에 희망하는 청년에게 문화콘텐츠 등의 산업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와 함께 일하면서 전문지식과 창직·창업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0년~2014년까지 운영하였다.

교육부의 LINC사업에서도 창업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창업교육센터 설립, 창업 강좌 운영, 창업지원인력 배치, 창업재정지원, 창업 공간 확보 등 대학 차원의 창업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 현황을 검토 및 분석한 결과,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종합 정책은 없지만 최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이 협업하여 대학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3년 9월 ‘창의·도전·희망이 함께하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년~2017년)을 마련하여 창업교육 강화 및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이 계획은 창업정신과 도전정신으로 무장된 창의적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준비된 창업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대학 내에 마련하여 창업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복한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는 대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편이다. 대학 내 창업교육 또한 체계가 미흡해 창업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생들이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이를 통해 준비된 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었지만 실제 진행상의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대학 창업지원정책의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수준은 아직 미흡한 편이며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추진과 전달 체계가 대학에 집중됨에 따라 대학 내 창업교육 및 지원조직이 난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대학의 창업 관련 실태 분석

3.1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관련 인식 현황

대학생 대상 창업강좌는 Table 1과 같이 2014년 281개 학교에서 4,751개가 운영 중으로, 2013년 대비 10.6%증가하였으나, 과목 수와 이수학생 수는 창업강좌 인정기준이 현실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6.2% 감소하였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Startup Education Support 1(Startup lectures) (Unit : unit, person)

| Classification | Lecture | | | Club | | |
|----------------|---------------------|-------------------|--|---------|--------------|--------|
| | Theoretical lecture | Excercise lecture | No.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lectures | Club | Participants | |
| '12 | Total(189) | 592 | 458 | 1,933 | 22,730 | |
| | Univ.(128) | 1,974 | 233 | 1,497 | 15,452 | |
| | College(61) | 618 | 225 | 28,934 | 436 | 7,278 |
| '13 | Total(254) | 4,311 | 2,820 | 232,031 | 2,782 | 32,573 |
| | Univ.(148) | 2,666 | 1,609 | 158,583 | 1,912 | 16,971 |
| '14 | Total(281) | 3,726 | 1,025 | 217,734 | 3,690 | 37,407 |
| | Univ.(166) | 2,367 | 608 | 147,086 | 2,678 | 21,616 |
| | College(115) | 1,359 | 417 | 70,648 | 1,012 | 15,791 |

Data : Revision and rearrangement of 2014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ctivity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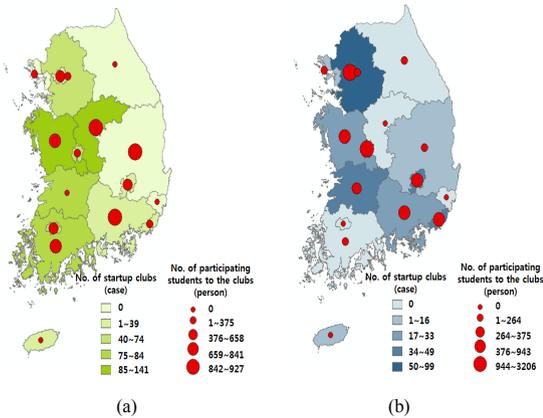


Fig. 2. No. of startup clubs and no. of participating students to the clubs
(a) Univ. (b) College

대학 학생창업기업 지원공간은 1위 동서대학교, 2위 부산대학교 등이 소재한 부산광역시와 가장 넓은 공간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학생창업기업 지원자금은 1위 조선대학교 소재지인 광주광역시가 가장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학생창업기업 지원공간은 1위 수원여자대학교가 소재한 경기도 지역이 가장 넓은 공간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학생창업기업 지원자금은 1위 인덕대학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가장 많이 지원되고, 2위 경남정보대학교 소재지 부산광역시, 3위 영진전문대학교, 4위 영남이공대학교 소재지인 대구광역시가 다음으로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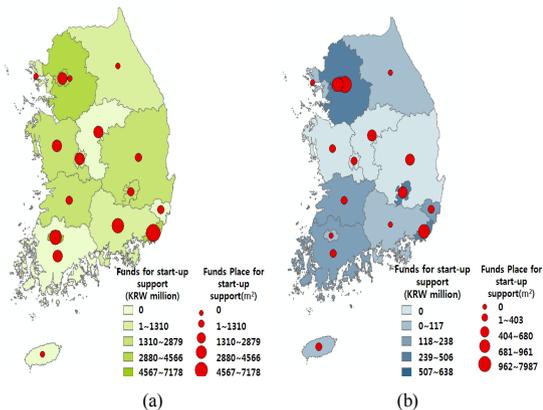


Fig. 3. Funds and Place for start-up support
(a) Univ. (b) College

대학생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공간이 없으면 대학생들이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지원 공간 분포를 보면 대학 및 전문대학 모두 적은 편이며, 특히 전문대학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공간에 대해서 정부 및 대학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대학 학생창업기업 지원인력은 2위 한국과학기술원과 15위 한밭대학교가 소재한 대전광역시가 지원인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학생창업기업 지원인력은 1위인 영진전문대학, 4위 영남이공대학교 등이 소재한 대구광역시와 2위 동양미래대학교, 3위 인덕대학교가 소재한 서울특별시가 지원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는 낮지만 12위 신구대학교, 14위 경민대학교, 15위 계원예술대학교, 16위 용인송담대학교가 소재한 경기도 지역을 취합하면 지원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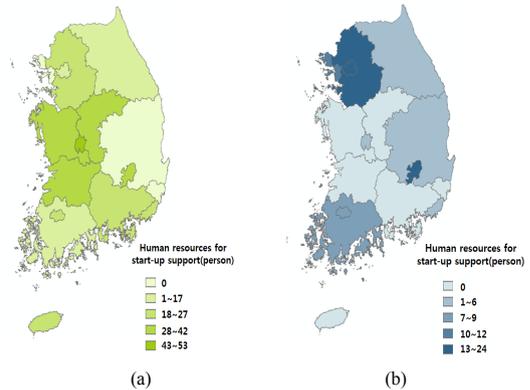


Fig. 4. Human resources for start-up support
(a) Univ. (b) College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 제공 등의 하드웨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지원인력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수는 적은 편이며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는 지원인력 보강이 요구된다.

대학 학생창업기업 매출액은 1위 열린 사이버대학교, 5위 연세대학교, 6위 서울대학교 등이 소재한 서울특별시가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학생창업기업 고용인원은 1위 한국과학기술원이 소재한 대전광역시와, 2위 고려대학교, 3위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등이 소재한 서울특별시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학생창업기업 매출액은 1위 한국폴리텍대학(인천캠퍼스) 소재지인 인천광역시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학생창업기업 매출액은 전국이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대학 학생창업기업 고용인원은 1위 인덕대학교가 소재한 서울특별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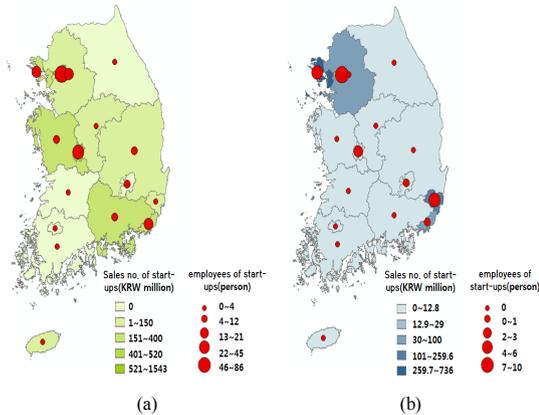


Fig. 5. Sales and no. of employees of start-ups
(a) Univ. (b) College

전반적으로 아직 대학생 창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인원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최근 3년 동안 청년 창업에 2조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의 좋은 취지가 변질 되지 않도록 창업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4. 대학 창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 분석

2015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체 창업 지원 사업 수는 9개 부처 99개 사업이 추진 중이었으나 ‘정부 창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해 유사사업간 통합되었다.

2015년 기준, 창업관련 주요 정책 중 대학의 창업관련 정책은 총12개이며,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1개, 미래창조과학부 5개, 중소기업청 6개가 추진 중이며, 예산은 총 156,924백만원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창업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대학 내 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중소기업청의 사업은 주로 사업화 지원 부분이고, 교육관련 분야는 8%대 수준이다(Table 2 참조).

Table 2. Startup Support Projects for Universities and College by Government Agencies (2015)
(Unit: KRW million)

| Agency | Name of business | Organizations in Universities | '15 budget |
|--|--|---|------------|
| Ministry of Education |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system establishment | LINC Project team | 1,350 |
| | No. of businesses : 1 | | 1,350 |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Joint Education for Technology Startup | Technology Startup Education Center | 2,500 |
| | K-ICT Startup mentoring | - | 3,500 |
| | Support for startup item verification(special zone) |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Business Incubator | 1,854 |
| | K-Global Startup Contest | - | 1,060 |
| | K-GlobalStartup / Smart device sector | - | 1,400 |
| No. of businesses : 5 | | | 72,630 |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Startup education (Startup academy) |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 9,300 |
| | Next generation Women CEO development |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Startup Support Foundation, Faculty of liberal arts | 200 |
| | Yes Leader (young entrepreneurs leader) Training Project | - | 1,730 |
| | Venture for Korea | Startup Support foundation, Job matching center | 5,000 |
| | LINC promotion | Startup Support foundation | 65,200 |
| | Project for supporting creative intellectual property (design) commercialization | Project in collaboration with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500 |
| No. of businesses : 6 | | | 82,944 |
| Total | No. of businesses : 12 | | 156,924 |

Data :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Measures for efficient startup support project by the government (launch of “K-startup”, an integrated brand)

Table 3. Universities and colleges receiving startup support from more than one government agencies

| Classification | | University |
|--|--|---|
| Start-up education center, Start-up support foundation | Universities running both organizations (16) | Kookmin Univ., Dongguk Univ., Korea Polytechnic Univ., Chungbuk Nat'l Univ., Dankook Univ., Soonchunhyang Univ., Hanbat Nat'l Univ., Hoseo Univ, Chonbuk National Univ., Chosun Univ, Wonkwang Univ., Jeonju Univ., Jeju Nat'l Univ., Kyungil Univ., Keimyung Univ., Dong-a Univ. |
| | College running both organizations (1) | Yeungnam University College |
| Start-up education center, Entrepreneur center | Universities running both organizations (1) | Hanyang Univ. |
| Entrepreneur center, Joint Education center for Technology Startup | Colleges running both organizations (2) | KAIST, POSTECH |

* In 2 universities, head of startup education center holds position of head of startup support foundation center concurrently among 17 universities and 2 colleges (Korea Polytechnic Univ., Soonchunhyang Univ)

대학 내의 부처별 창업 지원사업 중복 수혜 대학을 조사 분석한 결과 교육부(LINC사업)와 중소기업청(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사업은 16개 대학, 1개 전문대학이 중복 설치되어 있다. 교육부(LINC사업)와 중소기업청(기업가센터)사업은 1개 대학이 중복 설치 중이며, 중소기업청(기업가센터)과 미래창조과학부(기술창업교육센터)는 2개의 대학이 중복 설치되어 있다. 대학 내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하는 대학에서 창업지원 조직을 부처별로 운영하여 사업간 연계 미흡,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Table 3 참조).

사례로 A대학의 경우 창업교육센터(산학협력선도대학)와 창업지원단(창업선도대학)을 중복으로 수행 중인데, 학내 창업경진대회를 이틀에 걸쳐 각 사업별로 하루씩 진행하고, 행사보고서도 동일 내용을 작성하여 각 부처에 보고된 사례로 발생 하였다. 또한 각 부처별로 다양한 기능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각 사업별로 유사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학 내 현재 운영 중인 창업지원 조직은 교육부의 창업교육센터, 중소기업청의 기업가센터,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창업교육센터 등이 있으며, 대학생 지원중심으로 조직을 요약하면 Table 4와 같다.

대학 내 창업 전담 조직의 현황을 토대로 산학협력 및 창업관련 관계자,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으며, FGI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정부 각 부처의 지원 사업에 중복 선정되는 경우 지원 사업별로 별도의 조직을 두어 운영하고 있고 각 지원조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지원 사업에 중복 선정되는 경우 지원 사업별로 별도의 조직을 두어 운영하고 있어 각 지원 조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창업교육센터의 경우 LINC사업단의 관심도에 따라 창업교육센터의 활성화 및 지원정도가 결정되고 있으며, 창업교육 이후 창업 멘토링, 자금지원, 창업보육 등 창업사업화 및 창업기업 성장 연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비 LINC 대학을 포함한 권역별 창업교육 확산이 요구된다. 창업지원단은 일반인 예비창업자에게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 대학생 창업자 발굴에 한계가 있다. 창업 초기 이후 창업 성장단계로 이어지는 연계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의 숫자가 제한적이라 사업 확산의 어려움이 있다.

기업가센터의 경우 창업 지원 사업 일원화에 대해서 예산 집행 및 인력조정 문제로 인해 기존 창업 조직 협력이 어려우며, 기업가센터 선정 대학 간 공동 사업이 많으나 사업성과 평가를 대비한 대학 간 성과확보와 예산 집행 전가 등의 문제로 협력이 어려운 현실이다. 중장기적으로 대학이 교비, 기부금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대학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 내 창업지원 조직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 공간, 경영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가 209개 대학에서 산학협력단 산하 조직으로 운영 중인데 창업초기 단계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경제성과 대외 인지도를 획득하였지만 대학과의 연계성이 적어 대학 내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기술창업교육센터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술사업화 위주의 기술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질의 기업이 육성이 한계가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창업에 특화되어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대학과의 협력이 어렵고, 다양한 업종에 대

Table 4. Dedicated organizations for startup in universities(focusing on student support)

| Agency | Organization | No. of universities running those organizations | Affiliated organizations in university | Main jobs | Key functions | | |
|--|--|---|--|--|---------------|-----------|------------------|
| | | | | | Educ ation | Train ing | Impl emen tation |
| Ministry of Education | Start-up Education Center (LINC project) | 182 | LINC project team,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organization belonged to job-matching department in university, independent organizations | - Integrated startup education in universities - Cooperation with relevant departments in universities and startup-related organizations | ○ | | |
| |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hub | 5 | LINC Business Foundation | -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joint university startup clubs. Support for education for startup clubs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online startup lecture platform | | ○ | ○ |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Entrepreneur center | 6 |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 - Integration and adjustment of startup projects in universities -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system | ○ | | ○ |
| | Start-up support foundation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28 | Start-up Support Foundation | - Startup education/ finding out competent startup candidates - Support for startup - Support for growth promotion - Support for moving into BI | ○ | ○ | ○ |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Technology Startup education center | 5 |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 - Support for Technology startup in universities specialized in science and technology - Shared curriculum·Network·Overseas Benchmarking-Leading model | ○ | ○ | |

Data : Revision and rearrangement of data from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operation manual 2.0

* For startup education center an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hub, a part of the budget is used for startup support - startup budget vary by universities

한 대학생 창업기회를 축소시키고 있다. 창업 아이템 발굴과 자금, 멘토링 지원 외에 창업 보육 및 사업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각 부처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어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각 부처별로 특성화가 없는 실정이다.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하는 대학에서 각 부처별 사업을 유사·중복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조직의 통합 및 단장, 센터장의 보직 겸직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부처별로 창업 지원 사업을 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 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이지만 부처별로

사업 연계가 부족하고, 정보의 일원화된 창구가 미흡하다.

기업가센터, 창업선도대학, 기술창업교육센터의 경우 전체 대학에 비해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업의 확산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요약 및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짧은 기간 양적으로 증가한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이 질적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공급자 측면에서의 창업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 및 지원 현황, 창업 지원 사업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분석하고, 특히 대학 내 창업조직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지원 측면에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창업교육 증가 및 다양화 되어 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창업동아리 개설, 금전적 지원, 공간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현재, 창업기업 배출 및 매출액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하는 대학에서 각 부처별 사업을 유사·중복 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조직의 통합 및 단장, 센터장의 보직 겸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내 각각의 창업지원 조직은 조직 간 상호연계성 부족 및 지원프로그램의 중복성, 특정 대학에의 중복 지원 및 지원 대상 대학의 수적 제한 등에 따른 창업 지원 사업의 파급 효과 한계, 창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대학 간 협업 부재, 창업 교육 또는 창업 보육의 특정 부문에 편중된 지원 프로그램, 창업 사업화 및 성장 촉진 연계 프로그램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대학의 창업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범용적이고 일반적인 교양 선택 수준의 창업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창업교육 또는 창업동아리 등의 창업훈련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내용을 포함한 과정이 구축되어야 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 및 멘토 전문가 인력 풀 형성과 전국적 차원의 창업조직 네트워크화가 된다면 창업 매출액 및 고용인원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정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업 지원 사업 간 중복 배제 및 대학 현장에서의 사업 활성화 및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학 내 창업지원 조직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지자체 등의 창업교육 및 지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조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대학의 창업 지원 사업은 창업교육이 주 역할이며, 창업교육과 관련된 대학 내의 조직 통합은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단계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1단계는 분리형 연계로 창업교육센터 중심으로 기능별 분리하여 운영하며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교육 및 창

업자 발굴을 담당하고, 창업지원단과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센터는 창업사업화 등 사업의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내에서 창업교육 기능은 창업교육센터, 창업 사업화 지원 및 일반인 창업교육은 창업지원단, 성장지원은 보육센터 등으로 기능별 분화하여 전문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대학 내 창업교육 및 보육 등 조직 간 역할, 기능의 분리를 통해 각 조직 주체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향후 통합형 연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1단계 각 부처별 조직의 역할 및 기능이 정립된 후 대학 내 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등의 창업관련 조직을 1개 조직으로 통합하여 ‘대학창업 3.0센터(가칭)’을 설치하여 장기적으로 창업 전 단계, 창업 이후 기업 운영 단계 등의 창업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대학 창업교육과 창업 지원 정책의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창업지원조직 총괄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대학 내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내부의 자원뿐만 아니라 창업교육거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외부기관 네트워크 활용이 필요하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산학협력중개센터의 4가지 핵심기능 중 창업교육거점센터와 연계 가능하며, 창업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예산 등이 부족한 초창기 대학의 경우 권역별 창업교육거점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가능하다. 대학과 창업관련 외부기관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창업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된 결과 및 방향들이 대학생 창업 활성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Y. T. Kim, "A Study on the Operating Statu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Center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pp. 65-74, 2016.
- [2] J. H. Lee, "A Study on the Ways to Vitalize Students'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2), pp. 63-74, 2013. DOI: <https://doi.org/10.16972/apjbve.8.2.201306.63>
- [3] Y. D. Mok,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development model designed to systemiz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dergraduate schoo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February, 2011.

- [4] C. Zeithaml, G. H. Rice, "Entrepreneurship/Small Business Education in American Universiti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5(1), pp. 44-50, 1987.
- [5] P. Robinson, M. Hayes,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America's Major Universiti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5(3), pp. 41-52, 1991.
- [6] H. H. Stevenson, "Why Entrepreneurship Has Won!", *Coleman White Paper USASBE Plenary Address*, February 17, 2000.
- [7] B. J. Cho, "Entrepreneurship Education : An Integrated Model for Course Development and Curricular Directions",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18(2), pp. 157-184, 1996.
- [8] J. H. Han, M. J. Lee, "Management education for startup;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mprovement in Korea",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2(2), pp. 5-26, 1998.
- [9] Y. B. Ouh, "A Theoretical Inquiry into the Process of Entrepreneurship and Training Entrepreneurs",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15(2), pp. 3-26, 1993.
- [10] C. Y. Park, "A Suvey of the Current stat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iversity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15(2), pp. 79-113, 1993.
- [11] S. S. Bahn,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Intensive Program", *J. Jinju Nat. University*, 42, pp. 129-147, 2003.
- [12] K. S. Han, "The Systematization Pla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47, pp. 379-405, 2007.
- [13] H. B. Jeong, "A Study on the Educational Program Improvement of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Korea Business Review*, 12(1), pp. 109-128, 2008.

장 후 은(Hoo-Eun Ja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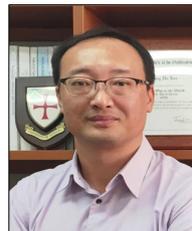
- 2013년 3월 : 일본 도쿄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학술박사(인문지리)
- 2015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관심분야>

경제지리학, 산학협력정책, 도시 및 지역개발

이 종 호(Jong-Ho Lee)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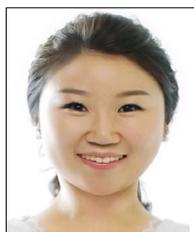
- 2002년 6월 : 영국 Durham University 대학원 지리학과 경제지리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 2015년 12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소장

<관심분야>

경제지리학, 도시 및 지역개발, 산학협력정책

허 선 영(Sun-Young Heo)

[정회원]



- 2013년 8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공학박사
- 2013년 10월 ~ 2015년 2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학술연구교수
- 2015년 3월 ~ 2016년 7월 : 산학협력정책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2016년 8월 ~ 현재 : 경상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학술연구교수

<관심분야>

도시 및 지역계획, 산학협력정책, Smart City, 안전도시